

관세 폭탄 유예·원화 약세...기아차 수출 탄력받나

최근 원화 약세와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 폭탄' 유예에 따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수출 경쟁력이 회복, 하반기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티지와 쏘울을 주력 생산하는 광주공장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아차의 수출 전진기지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대두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193.25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2.45원 하락했다. 앞서 17일에는 1195원을 돌파하며 7거래일째 연고점을 경신, 2년4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간 원·달러 환율은 5%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이 글로벌 시장에 비해 부정적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는 청신호다.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증권 김준성 연구원은 최근 '자동차-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 민감도 중간점검' 보고서에서 "원화 약세

스포츠지·쏘울 생산 광주공장 경쟁력 회복 하반기 활기 기대 신차 판매 호조도 수출증대 한몫

는 외화부채 평가손실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판매량·수익성 증대로, 실적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기아차의 올해 영업이익은 해외 시장 가격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으로 인해 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올해 신차 판매 호조로 2015년 이후 4년 연속 역성장해온 현대·기아차의 국내공장 수출판매가 지난 1분기 8%로 성장 전환했다"며 "2분기 첫 달인 4월에도 양사 합산 전년 동기 대비 9%(현대차 5%·기아차 13%)의 수출 판매 증가가 이뤄졌으며, 우호적 환율 환경과 팰리세이드·코나 등 신차 투입 확대 등이 지속되면 이 같은 성장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

다. 메리츠증권증권은 "원화 약세로 기아차의 수출 이익증가가 예상된다"며 기아차 목표주가를 4만5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높였다. 기아차가 그동안 수출 비중을 확대해 온 결과, 자동차 업종 주요 기업 중 환율 변화에 따른 이익 민감도가 가장 높은 회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지역 자동차 업계를 긴장으로 내몰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자동차 관세 25% 부과' 결정이 6개월간 유예됐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일단 안도할 수 있게 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2004년 12월 2세대 스포티지를 미국시장에 처음으로 수출한 이후 현재 쏘울 부스터(EV 포함)와 스포티지를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쏘울과 스포티지는 35만1718대다. 이중 60%를 차지하는 21만771대가 북미 지역으로 수출됐다.

차종별로는 쏘울 수출물량이 가장 많다. 16만4101대 중 70.5%를 차지하는 11만5738대를 북미 지역에 판매했다. 스포티지의 경우는 18만7617대 중 50.6%를 차지하는 9만5033대가 같은 지역으로 수출·판매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하이클래스 소형SUV 렌더링 이미지 공개 스타일·차별화된 감성적 가치 '콤팩트 시그니처'

기아자동차가 올해 하반기 선보일 하이클래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외장 렌더링 이미지(사진)를 최근 공개했다.

혁신적이고 대담한 스타일과 차별화된 감성적 가치가 응축된 '콤팩트 시그니처'가 핵심 키워드다.

대담한 롱후드 스타일과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범퍼 캐릭터라인이 강조된 전면부, 볼륨감있는 펜더를 기반으로 정교한 리어컴비네이션 램프, 이와 연결되는 테일게이트 가니시를 적용한 후면부로 이중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기아차의 설명이다.

기아차는 하이클래스 소형 SUV가 나오면 스톤이, 쏘울, 니로, 스포티지, 쏘렌토, 모하비로 SUV 라인업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평가했다. 기아차는 하반기 국내를 시작으로 인도와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고객에게 이 차종을 공개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스포츠지



쏘울 부스터

"5년후 전세계 승용차 12% 자율주행통신"

1120만대 차량사물통신 장착 시장조사업체 IHS마킷 보고서

앞으로 5년 뒤에는 전세계 승용차 10대 가운데 1대 이상에 차량사물통신(V2X·Vehicle to Everything) 시스템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V2X란 차량이 유·무선망을 통해 다른 차량이나 모바일기기·도로 등과 연결해 정보를 교환하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특히 최근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20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4년에는 V2X 시스템이 장착된 승용차 생산대수가 약 1120만대에 달하면서 전체 신차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기준으로 생산대수가 1만5000대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77.5%에 달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V2X 시스템의 기술적 기반이 단기적으로는 근거리전송무선통신기술(DSRC) 중심으로 구축되겠지만 오는 2021년부터는 셀룰러 V2X(C-V2X) 기

술이 이를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선랜 기반의 DSRC가 이미 칩 설계 등의 측면에서 안정성과 기술을 검증받았지만 5G 보급이 본격화할 경우 초고속 이동통신 기반의 C-V2X가 업계 표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당장 내년에 C-V2X 기술이 적용된 승용차를 무려 62만9000대 생산하며 시장 성장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DSRC 진영'으로 분류되는 유럽이 41만1000대로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과 일본도 V2X 시장의 성장에 한 몫을 담당하겠지만 오히려 '자동

차 중주국'으로 불리는 미국은 오히려 다소 뒤처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IT업계에서는 지역과 기술과 관계없이 V2X 기술의 확산은 반도체 수요 증가로 직결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프로세서, LED 등 첨단 반도체가 필수적이기 때문으로, 실제로 이미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량용 제품의 매출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8.6%나 증가하면서 전체 시장 성장률(13.7%)을 훨씬 상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아차, 송암공단 오토큐 남광주서비스에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정비 작업장 구축

기아자동차가 광주시 남구 송하동 송암공단 내 오토큐 남광주서비스에 국내 처음으로 전기차 전용 정비 작업장을 구축했다.

기아자동차는 니로 EV와 쏘울 부스터 EV 등 전기차를 산 고객에게 쉽게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협력사인 오토큐에 전기차 정비 작업장인 'EV 워크베이'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EV 워크베이가 설치된 오토큐는 광주 남구 남광주서비스와 천안아산 서비스, 경기도 평택 비전점, 경남 김해 서검해서비스, 부산 원스탑종합자동차, 서울 마포국도서비스 등 6곳이다.

기아차는 올해 말까지 충주와 청주, 증평, 대구, 제주 등에 추가로 구축하고 새로 인가를 받는 오토큐 사업장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EV 워크베이는 전기차 맞춤형 다용도 작업대와 특수공구, 절연 바닥재 등을 갖춘 정비 효율성도 높였다.

기아차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활발한 데 비해 전용 정비 인프라는 부족해 고객들이 겪을 불편에 공감했다"며 "전기차 정비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전문적인 점검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상반기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21기를 오토큐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방전으로 주행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연간 4회, 편도 80km 한도에서 무상 견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속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